

독자 토론

부적

대형사고 늘며 부적 인기

분명한 비불교, 신행의 방편 안돼

사회가 어수선하고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적(符籙)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입시철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시기에서 부적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적은 현대에 들어서 목걸이나 열쇠고리 등의 펜시형으로 변형되어 젊은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 민간신앙으로 뿌리 내려온 부적은 분명히 비불교적이다. 그런데도 매년 정월이면 일부사찰에서 부적이 공공연히 나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계사 부근 불교용품상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매장의 많은 부분이 이들 부적형 용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명이 찾고 있다. 부적은 원래 종이 위에 글씨나 그림, 기호 등을 그린 것으로 그 기원은 인류가 바위나 동굴에 주술적인 현상을 그려던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현대와 비슷한 빨간색으로 그리기 시작한 부적은 10만년이 넘는다는 설이 있다. 부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술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즉 부적을 지닌 이에게 악귀가 붙지 않는다는 믿음이 퍼져나갔다. 나이가 무거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되었다.

진 사람이거나 불안한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그릇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인간의 노력의 뒤따라야 하며 미신이라고 부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미신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속학자들은 "부적은 음력 정월이 되면 '가정편안'을 위해 집안에서 간직한 고유의 전통관습"이라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서당당한 민속으로 개발,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사찰에서 부적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충격을 주기도 한

다. 일부 스님들이 사찰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을 매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 비불교"라는 것이 대부분 스님들의 지적이다. 부처님은 많은 경전을 통해 "부적 집술들을 하지말라"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탐진치 삼독으로 지은 업은 자신이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지 부적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되는 부적을 방편이라는 미명 아래 신도들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불자들의 주장이다. (열)

이렇게 생각한다

악업 쌓는 샅된 욕심의 징표

어느 사찰에서는 부적을 만들어 파는 일도 있습니다. 오히려 샅된 법을 포교하는 셈이 되지요. 바로 이런 것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저는 부적보다 수승업경 다라니 주문의 부처님 말씀을 독송하는 것이 훨씬 더 불자다운 태도라 생각합니다. 부적을 사들이고 받아오는 일보다 부처님 경전 한 권 더 모시고 독송하는 것이 큰 보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으로 경전 한 권 모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에 오면서 부적도 다양해졌습니다. 자동차용, 가정용, 안방용, 주머니용, 사업용 등을 볼 수 있는데 함으로 어찌구비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이 환시 계심을 알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 명호를 부르던 가피를 입는다고 경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욕심이 샅되면 부적이 되고, 욕심이 불보살이 되기를 원할 세운다면 큰 보배가 될 것입니다. 김형철(백시기사·서울 관악구 신림5동)

방편으로 쓰는 '마음의 의지처'

지난 30여년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자동차, 집값, 집안 구석구석 부적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우선 방편의 불부 터 그리고 했으나 뒷일은 자꾸만 골레로 쌓여갈 뿐 어떤 명쾌한 해결책이 없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 내마음의 주장자(주인공)가 똑바로 서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대고 저기에도 기대고 했던 것 같다. 부적으로 인해 크게 좋아졌

던 일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은 당연히 부적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이전의 내 모습처럼 부적이 있으면 해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불교에 대해서 또 부적이 대해서 좀 더 알고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대로의 필요성, 유익성이 있으므로 부적이든 마 글없이 존재하리라 본다. 이 지 은(주부·인양시 팔촌 삼마을)

어리석은 관습, 버리니 할가분

결혼한지 벌써 15년째. 더불어 부적을 접한지도 꽤 오래 된 것 같다. 그냥 삶을 사는데 부속물인 양 애 없애서는 안되는 것 같은 습관처럼 접해온 것이다. 더욱이 남편이 사업하는 관계로 부적은 관례처럼 되어있었다. 이사라도 가려면 그집에 부적 불이고 시간 맞춰서 은 갓 정성 드려서 짐을 옮기고 회사 사무실 속까지 아니 불인데 없으니 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행이었다. 참이 바뀌면 다시 태우고 바꾸고, 일이 잘되면 그 덕이 있으리, 안되면 흑시나 하고 불안해 하고... 그렇게 보면 그 세월이 아

쉽기만 할 뿐이다. 난 요즘을 너무 흥가분하고 깨닫고 당당하다. 모든 이 중생의 마음을 나의 뿌리인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긴 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부적이라는 관념에 이끌려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 어리석음을 이제야 알고 영원히 벗어났으니, 함으로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귀신 아닌 귀신행을 하면서 마음의 온통 짐을 다 짊어진 채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 큰 불법을 만났으니 그 진리에 순응하면서 여여하게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김애리자(주부·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만화

법구경

정진(不放逸)의 장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욕력에 빠지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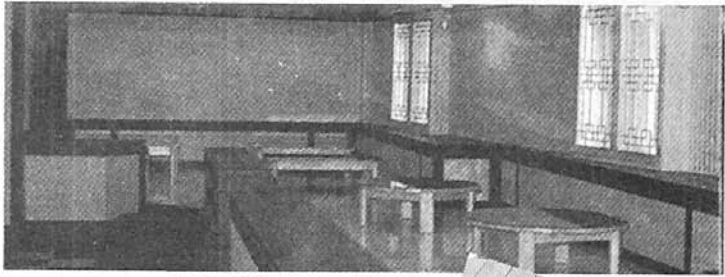
이향원

이향원 만화 '법구경'은 정진(不放逸)의 장을 주제로,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욕력에 빠지지 말라를 주제로 다룬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이향원, 김형철, 김애리자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이향원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김형철이 "조그만 불행은 참고 타는 분도 있을수 있잖아"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한번 팔았다고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어?"라고 반박한다.
- 점점:** 이향원이 "이렇게 하면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라겠어요"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시간은 만들어 쓰면 돼"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어제 그 일 어찌됐어요?"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정말 더러워서 못해먹겠어"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손 발 달도록 빌어서 겨우 계약했어요"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얼음판에 동사정 해서 한대 나 참!"이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마선생님 전화 왔어요"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나! 차 사겠다는 사람인가?"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아니! 뭐요? 그건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수리 해결될 거야"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젠장, 내가 정비공장이야 고장만 나면 나한테 전화걸어야"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그분도 담당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그럼 시간 있으면 날잡이나 지겠소"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어이! 어디가서 한발짝 잡아 이것 때려 치워야지"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성질도... 또 건너면 오락실에 가는 거겠조"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가보(家寶)처럼 지킨다"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욕력에 방종에 빠지고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안락을 얻게 되리라"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어제 자동차 계약금 받은것 오락실에서 다 날렸나봐요"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뭐! 또..."라고 대답한다.
- 점점:** 이향원이 "이런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때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를 내려다 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듯이"라고 말하며, 김형철은 "이향원"이라고 대답한다.

녹수 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녹수청산은 특유의 비법으로 한방 약차를 달이고 지리산 수제 녹차만 제공합니다.



녹수청산은 순회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따로 발품을 미련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에서는 청과 이은구 선생의 고급 분청사기를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차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단체·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